

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

VIP 리포트

■ 창업을 두려워하는 사회, 창업 열기를 북돋워야 한다
- 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

발행인 : 김 주 현
편집주간 : 한 상 완
편집위원 : 주 원, 장후석, 백흥기
발행처 : 현대경제연구원
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-7
Tel (02)2072-6305 Fax (02)2072-6249
Homepage. <http://www.hri.co.kr>
인쇄 :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(02)2636-0555

-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.
-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.
-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,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(02-2072-6245)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목 차

■ 창업을 두려워하는 사회, 창업 열기를 북돋워야 한다
: 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Executive Summary | i |
| 1. 침체된 창업 열기 | 1 |
| 2. 창업을 두려워하는 사회 | 2 |
| 3. 시사점 | 14 |
| 【HRI 경제 통계】 | 17 |

< 요약 >

침체된 창업 열기

- 국내 창업의 활력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 신생률이 2001년 28.9%에서 2011년 20.2%로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는 등 창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악화됨
- 따라서 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살펴봄으로서, 창업 관련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

창업을 두려워 하는 사회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높은 창업 관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우리나라는 창업에 대해 관심도가 매우 높은 편(39.6%) - 창업을 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까지 오래 일을 할 수 있어서(44.2%) · 창업성취감(21.4%), 돈을 많이 벌어서(20.1%), 직장 적성 안맞아서(9.1%) 순서 |
| 창업이 부진한 이유 | <p>① 사회 인식 : 창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인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자녀창업) '자녀가 창업한다고 하면 반대하겠다'는 사람이 과반수 이상(52.1%) · (개인파산) 창업 실패 시 개인 신용불량으로 이어진다는 의견 92.2% <p>② 제도 여건 : 실패 후 재기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재기가능성) 4명 중 3명(75.5%)은 실패 시 재기 가능성이 없다고 인식 · (창업환경) '우리나라는 창업하기에는 여건이 나쁘다'는 의견(86.4%) <p>③ 창업 여건 : 창업을 어렵게 인식하여 창업에 소극적 태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준비기간) 창업을 위해서는 4년 정도의 준비기간 필요하다고 인식 · (창업자금) 최소 1억 5천만 원이 창업을 위해 필요 · (자금출처) 본인이 직접 창업자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 62.0% · (창업상담) 누구와 창업 상담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22.4% <p>④ 최근 경기 여건 : 창업에 관심있으나 경기 상황 때문에 창업하지 않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(창업걸림돌) 경기 침체의 지속(55.9%)이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 |
| 창업활성화 방안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창업 관련 학교 교육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창업에 대한 두려움 극복 · 어떻게 창업을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사람 82.3% - 창업활성화 위해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주는 컨설팅(36.9%)이 가장 필요 · 창업자금 지원(31.2%), 창업교육 지원(15.6%), 멘토 연결(10.9%) 순서 - 생계형 창업(식당, 도소매업 등)보다 혁신형 창업(IT, 바이오 등)으로의 유도 필요 · 현재는 혁신형 창업(16.7%)보다 생계형 창업(69.9%) 비중 |

시사점

- ① 창업 관련 학교 교육을 어려서부터 제공하여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
- ② 창업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시켜주는 컨설팅이나 멘토 제도 등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
- ③ 생계형 창업보다는 IT, 바이오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형 창업을 유도해야 함
- ④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 고취를 통해 청년실업문제의 극복의 계기로 활용해야 함

1. 침체된 창업 열기

○ 국내 창업자의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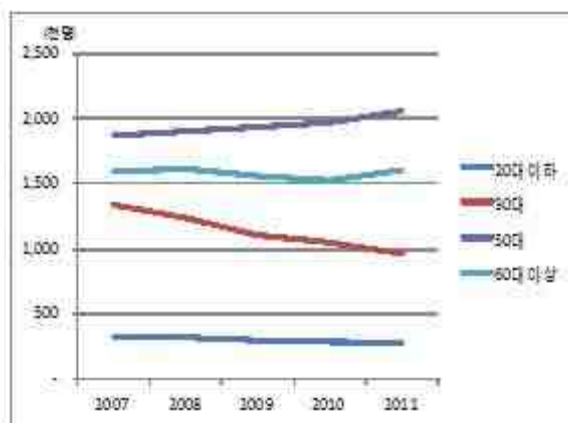
- 최근 들어 국내 창업의 활력 정도를 나타내는 기업신생률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였음
 - 가동사업자 대비 신규 사업자로 나타내는 기업신생률은 2001년 28.9%에서 2011년 20.2%로 하락했고 기업 소멸률도 동기간 21.6%에서 16.7%로 낮아짐
 - 국내 신규사업자(사업자 등록 기준)는 2002년 123.9만개로 최고치를 기록했고 2007년 이후로는 100만개 수준을 유지
 - 폐업자도 빠르게 증가하여 2011년 89.7만개로 최고치를 경신했고 신생률과 소멸률 간 격차도 2007년 이후 꾸준히 축소
- 연령별로 살펴보면, 50대와 60대 이상의 창업율은 높은 반면, 20대 청년들의 창업률이 가장 낮게 나타남
 - 20대 이하의 자영업자 수는 2011년 28만명 수준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며, 30대의 경우 자영업자 수의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이들의 창업 의지가 매우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따라서 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살펴봄으로서, 창업 관련 문제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

<기업의 신생·소멸률 추이>



자료: 현대경제연구원, '창조형 창업이 없다'(2013.4)
 주: 신생률=(각년도 신생기업)/(각년도 가동기업)*100
 소멸률=(각년도 소멸기업)/(각년도 가동기업)*100

<연령별 국내 자영업자수 변화 추이>



자료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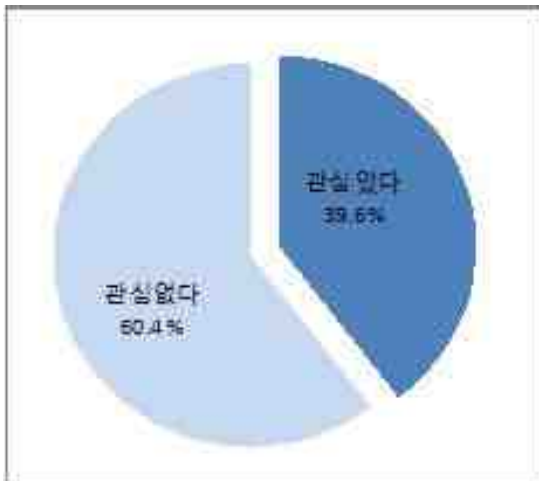
2. 창업을 두려워하는 사회1)

1) 창업 일반 의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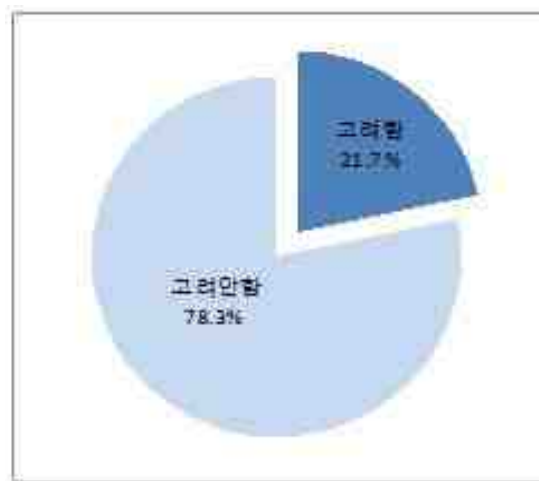
○ 높은 창업 관심

- 현재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,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 정도는 창업에 관심이 있음
 - '귀하는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'라는 질문에 '매우 관심있다'와 '약간 관심있다'는 비율이 39.6%임
 - 현재 창업 중인 사람들을 제외한 점을 고려한다면, 국내에 창업에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음
- 구체적으로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도 21.7%에 이룸
 - '창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려해보신 적이 있습니까'라는 질문에 '그렇다'는 비율이 21.7%나 됨
 - 여자(19.5%)보다는 남자(24.1%), 지방(19.9%)보다는 서울(29.0%), 비이공계열 출신(20.2%)보다는 이공계열 출신(26.2%)들이 창업을 좀 더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, 연령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음

<창업 관심 여부>



<구체적 창업 고려 여부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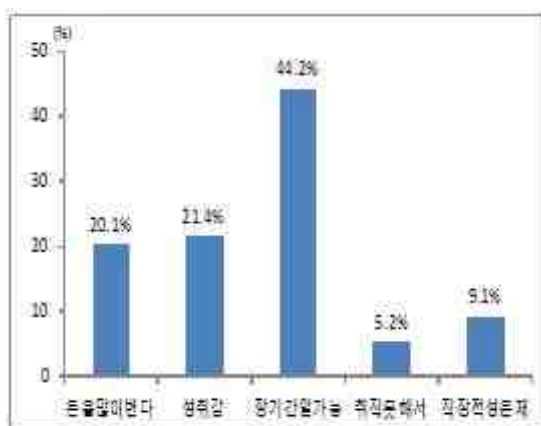
주)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10월 설문조사

1) '창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 조사'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전국 성인 남녀 815명을 대상으로 2013년 10월 7일부터 10월 11일까지 일주일 간 전화조사로 진행되었다. 조사의 최대 오차 범위는 95%신뢰수준에서 ±3.43%이다. 본 조사 결과의 내용은 주 창업 세대인 20대-50대까지 705명에 대한 결과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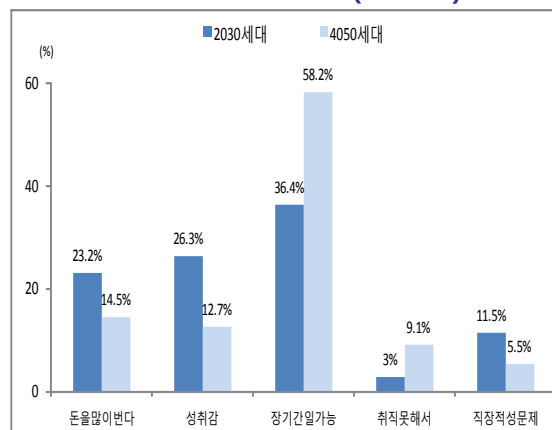
○ 창업을 하려는 이유

- 우리나라 국민들이 창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후에도 장기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으로 나타남
 - ‘창업을 고려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’라는 질문에 창업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 중 44.2%가 나이가 많아도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어서라고 응답함
 - 다음으로 창업성공에 따른 성취감 때문에(21.4%), 직장 생활보다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(20.1%), 직장 생활이 적성에 안맞아서(9.1%) 순서임
- 연령별로 살펴보면, 2030세대는 창업 성취감, 돈에 대한 욕구 등이 크게 나타남 반면, 4050세대는 노후에도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 매우 큼
 - 2030세대는 나이가 많아도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어서(36.4%), 창업성공에 따른 성취감 때문에(26.3%), 직장 생활보다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(23.2%), 직장 생활이 적성에 안맞아서(11.5%), 취직을 못해서(3.0%) 순서로 나타남
 - 4050세대는 나이가 많아도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어서(58.2%), 직장 생활 보다는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서(14.5%), 창업성공에 따른 성취감 때문에(12.7%), 취직을 못해서(9.1%), 직장 생활이 적성에 안맞아서(5.5%) 순서로 나타남

<창업을 하는 이유>



<창업을 하는 이유(연령별)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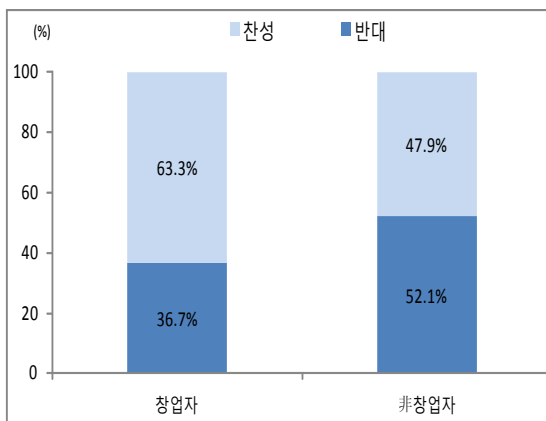


2) 창업이 부진한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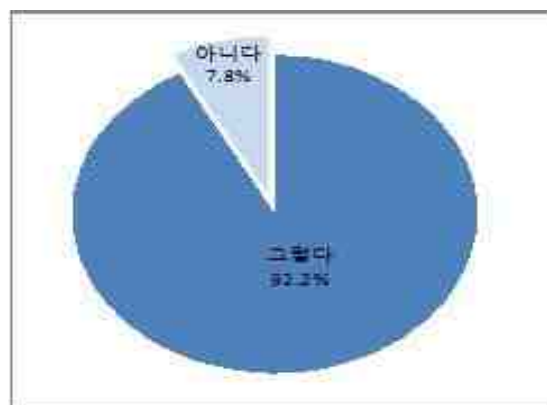
① 사회 인식 : 창업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

- 자녀의 창업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나타내 창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다고 판단됨
 - '나의 자녀가 창업을 한다고 하면 반대하겠다'라는 의견에 52.1%의 사람들이 '그렇다'라고 응답함
- 다만, 이미 창업한 사람들의 경우 자녀의 창업에 대해 오히려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남
 - 자녀의 창업에 대해 찬성한다는 의견이 63.3%인 반면, 반대한다는 의견은 36.7%에 불과함
- 우리나라는 창업 실패가 기업 파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파산으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큼
 - '우리나라는 창업했다 실패하면 개인 신용불량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'라는 의견에 '그렇다'는 비율이 92.2%임
 - 남자(91.9%)나 여자(92.5%) 상관없이 개인 파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임
 - 또한 실제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(89.0%)이나 非창업자(92.2%) 역시 개인 파산에 대한 우려가 높음

<자녀의 창업 찬성 여부>



<창업실패는 개인 파산 의미한다>



② 제도 여건 : 실패 후 재기 가능성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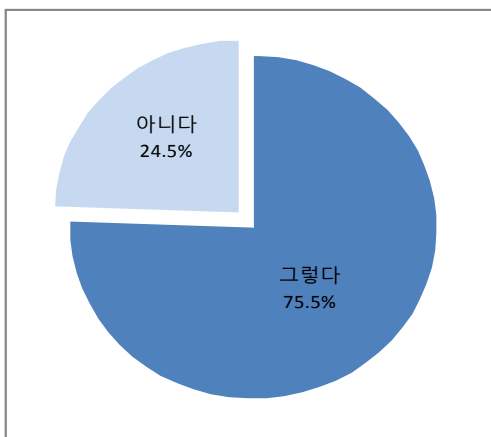
○ 창업 실패 시 재기가 어려운 사회

- 우리나라는 한번 실패 시 재기가 어려운 사회로 인식되고 있음
 - ‘우리나라는 한번 실패하면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이다’라는 의견에 ‘그렇다’는 비율이 75.5%임
 - 남자(79.2%)가 여자(72.1%)보다 좀 더 재기하기 어려운 사회로 인식
 - 다만, 실제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(67.9%) 역시 재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, 非창업자(75.5%)에 비해 재기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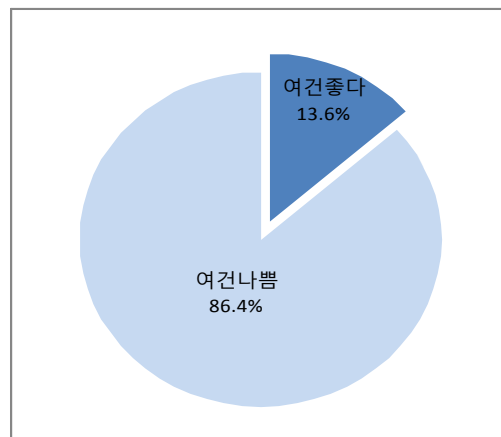
- 창업 실패가 두려운 이유는 역시 금전적 손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
 - ‘창업 실패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’라는 질문에 ‘창업 실패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크기 때문’이라는 응답이 2030세대의 경우 69.6%로 4050세대의 59.1%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

- 조사대상자 10명 중 9명 정도는 우리나라의 창업 여건을 나쁘다고 인식
 - ‘귀하가 생각하시기에 우리나라의 창업여건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’라는 질문에 ‘매우 나쁜 편’ 과 ‘약간 나쁜 편’이라는 비율이 86.4%임

<실패 시 재기 어려운 사회이다>



<창업 환경>



③ 창업 여건 : 창업을 어렵게 인식하여 창업에 소극적 태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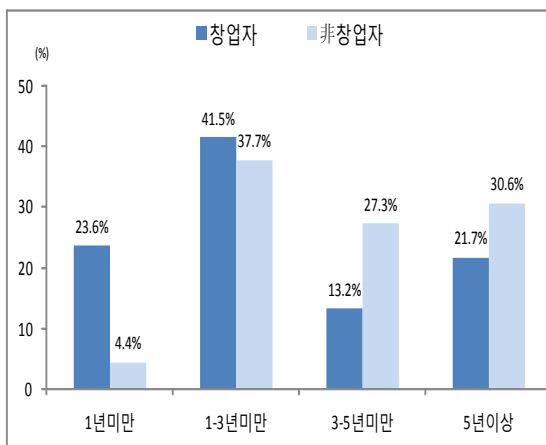
○ 준비 기간

-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평균 약 4년 정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
 - ‘창업 준비에 필요한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’라는 질문에 평균 약 4년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함
 -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1년 미만 4.4%, 1-3년 미만 37.7%, 3-5년 미만 27.3%, 5년 이상 30.6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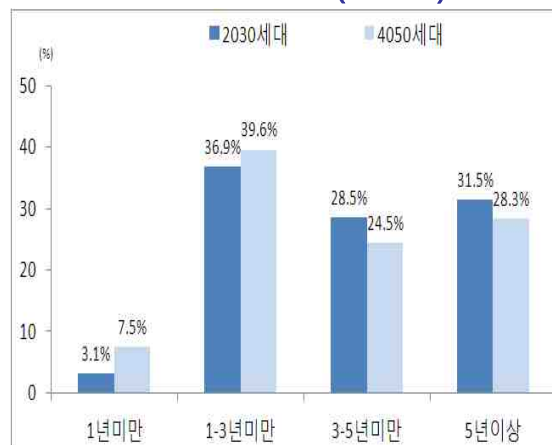
- 다만, 이미 창업한 사람들의 경우 평균 약 3년 정도 준비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
 -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1년 미만 23.6%, 1-3년 미만 41.5%, 3-5년 미만 13.2%, 5년 이상 21.7%로 나타남

- 지역별로는 서울 사람들이 지방 사람들에 비해 창업 준비에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식함
 - 서울은 평균 약 4년 이상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, 지방의 경우 평균 약 3년 조금 넘는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

<창업 준비 기간>



<창업 준비 기간(연령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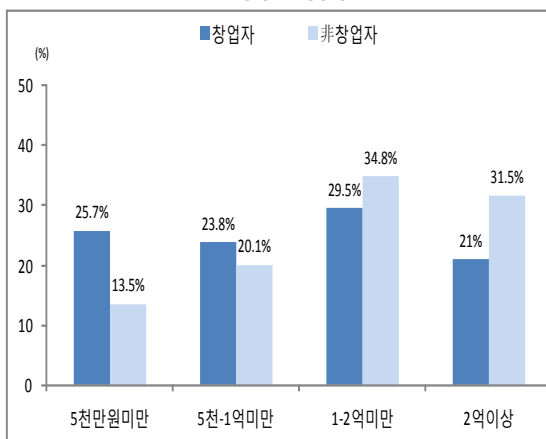
○ 창업 자금

-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평균 약 1억 5천만원 정도의 창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
 - ‘창업 자금은 최소한 얼마 정도 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’라는 질문에 평균 약 1억 5천만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함
 -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5천만원 미만 13.5%, 5천-1억원 미만 20.1%, 1억-2억원 미만 34.8%, 2억원 이상 31.5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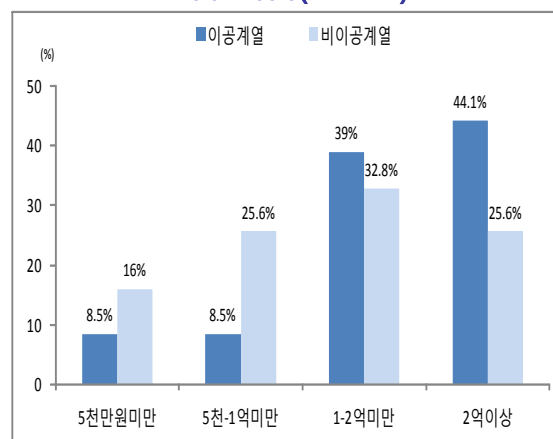
- 다만, 이미 창업한 사람들의 경우 평균 약 1억 1천만원 정도 준비했다고 응답하고 있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창업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
 -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5천만원 미만 25.7%, 5천-1억원 미만 23.8%, 1억-2억원 미만 29.5%, 2억원 이상 21.0%로 나타남

- 전공 출신별로는 이공계열 출신자들이 비이공계열 출신자들에 비해 창업 자금이 좀 더 필요하다고 인식함
 - 이공계열 출신은 평균 약 1억 8천만원 정도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, 비이공계열 출신은 평균 약 1억 3천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인식함

<창업 자금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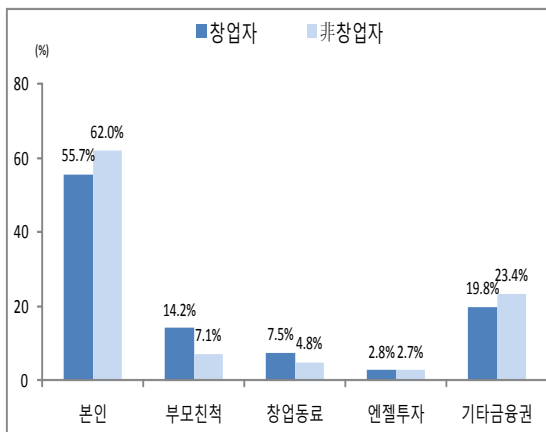
<창업 자금(출신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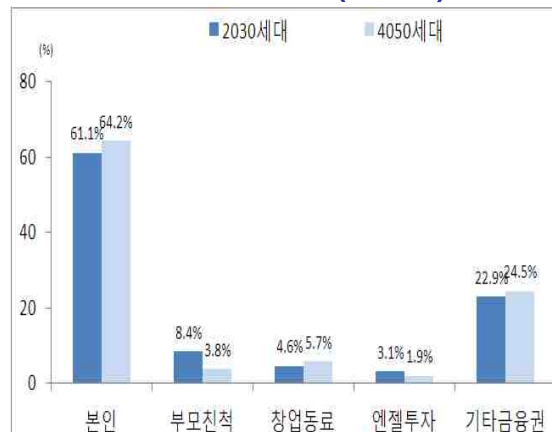
○ 창업 자금 출처

-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창업 자금은 대부분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어, 본인이 창업의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됨
 - ‘귀하의 주요 창업 자금 출처는 어디입니까?’라는 질문에 62.0%의 사람들이 ‘본인’이라고 응답함
 - 이외에 ‘기타 금융권 대출’ 23.4%, ‘부모 및 친인척’ 7.1%, ‘창업 동료 및 지인’ 4.8%, ‘엔젤 투자’ 2.7% 순서로 나타남
- 다만, 이미 창업한 사람들 역시 필요한 창업 자금은 본인이 마련해야 한다고 인식이 높지만,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해 본인 마련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
 -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본인 55.7%, 기타 금융권 대출 19.8%, 부모 및 친인척 14.2%, 창업 동료 및 지인 7.5%, 엔젤 투자 2.8% 순서로 나타남
- 연령별로는 2030세대(8.4%)가 4050세대(3.8%)보다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
 - 2030세대들의 본인 마련 응답은 61.1%이며, 기타 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겠다는 비율도 22.9%나 차지하고 있음

<창업 자금 출처>



<창업 자금 출처(연령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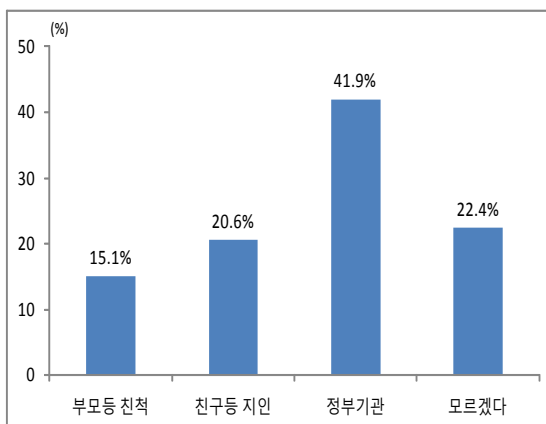
○ 창업 상담

- 창업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정부 창업 관련 기관과 상담하겠다는 사람이 많은 편이지만, 누구와 상담할지 모르는 사람도 10명 중 2명 이상임
 - ‘만약 귀하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누구와 상담하시겠습니까’라는 질문에 41.9%의 사람들이 ‘정부 창업 관련 기관과 상담하겠다’고 응답함
 - 이외에 ‘누구와 상담해야 할지 모르겠다’ 22.4%, ‘친구 등 지인’ 20.6%, ‘부모 등 친척’ 15.1% 순서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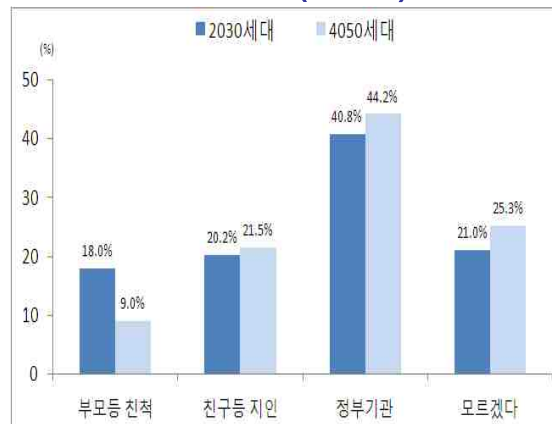
- 다만, 이미 창업한 사람들은 정부 관련 기관 대신 친구 등 지인과 상담하겠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
 - 구체적으로 살펴보면, 친구 등 지인 35.5%, 정부 창업 관련 기관 29.9%, 누구와 상담해야 할지 모르겠다 23.4%, 부모 등 친척 11.2% 순서로 나타남

- 연령별로는 2030세대(18.0%)가 4050세대(9.0%)보다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
 - 2030세대의 경우 창업 관련하여 누구와 상담할 지 모르겠다는 사람들도 21.0%로 많은 편임

<창업 상담>



<창업 상담(연령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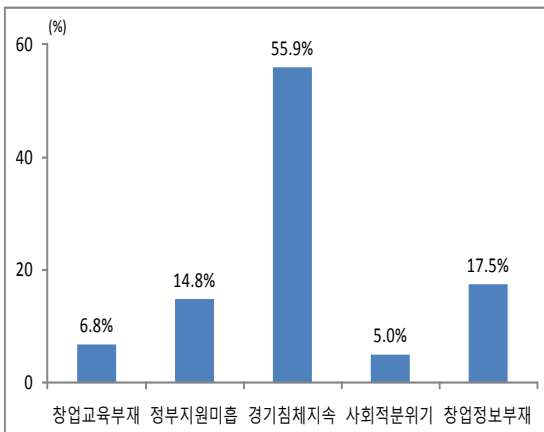
④ 최근 경기 여건

○ 창업 걸림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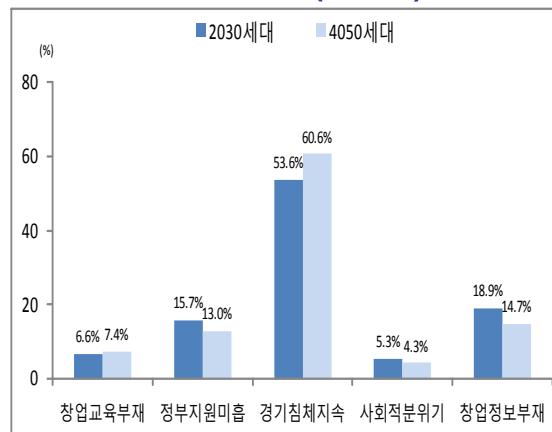
- 조사대상자 10명 중 6명 정도는 창업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경기 침체의 지속을 선택함
 - ‘창업의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’라는 질문에 ‘경기 침체 지속’이라는 비율이 55.9%임
 - 이외에, ‘창업관련 정보 부재’ 17.5%, ‘정부지원 미흡’ 14.8%, ‘창업 관련 교육 부재’ 6.8%, ‘창업에 부정적인 사회적 분위기’ 5.0%로 나타남

- 연령별로는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경기 침체를 선택한 사람들은 4050세대가 2030세대보다 좀 더 많음
 - 2030세대는 53.6%인데 반해 4050세대는 60.6%가 창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경기 침체를 선택함

<창업 걸림돌>



<창업 걸림돌(연령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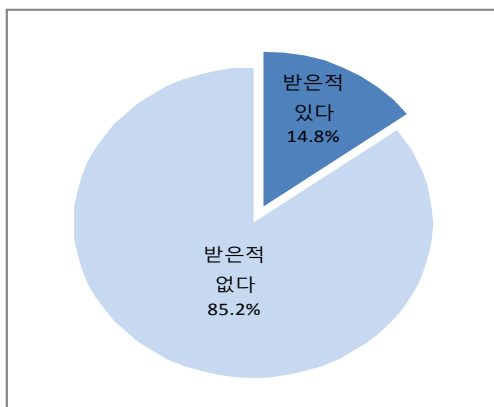
3) 창업 활성화 방안

○ 창업 교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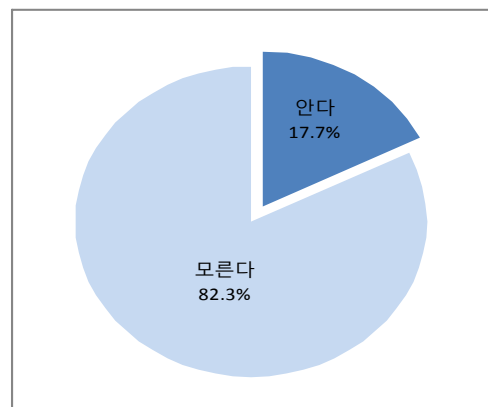
- 학교에서 창업과 관련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극히 적어 창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
 - ‘귀하는 학교를 다니면서 창업과 연관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’라는 질문에 ‘그렇다’는 비율이 14.8%에 불과함
 - 성별로는 남자(19.9%)보다는 여자(10.2%)가 창업 관련 교육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에 대한 창업 교육 지원이 필요함
 - 지역별로는 서울(18.8%)보다는 지방(13.8%) 사람들이 창업 관련 교육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

- 결국, 학교 창업 관련 교육의 부재는 창업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창업을 하고 싶어도 창업을 하지 못하는 악순환을 야기시킴
 - ‘귀하는 창업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창업 방법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’라는 질문에 ‘그렇다’는 비율이 17.7%에 불과함
 - 성별로는 남자(22.6%)보다는 여자(13.4%)가 창업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여자에 대한 창업 방법 교육이 필요함
 - 지역별로는 서울(24.6%)보다는 지방(16.0%) 사람들이 창업 방법을 더욱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

<창업 관련 교육 경험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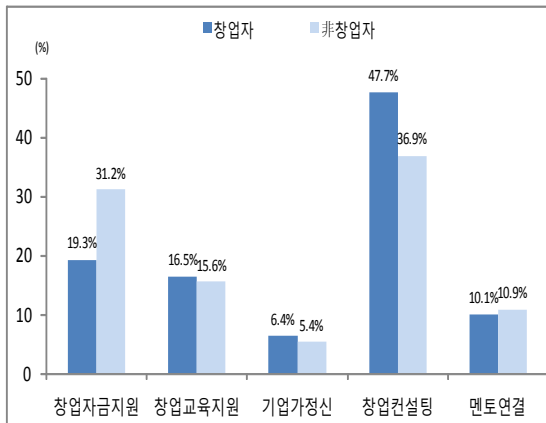
<창업하는 방법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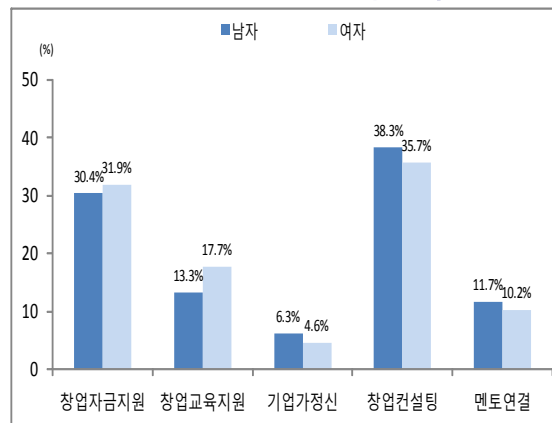
○ 구체적 활성화 방안

-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을 실현시켜주는 컨설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
 - ‘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’라는 질문에 ‘사업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주는 컨설팅’이라는 비율이 36.9%임
 - 이외에 ‘최소한의 창업자금 지원’ 31.2%, ‘기업경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제공’ 15.6%, ‘인적 네트워크 연결’ 10.9%, ‘기업가 정신 고취’ 5.4%로 나타남
- 결국, 창업 자금도 중요하지만 우선 창업 아이디어가 있을 경우 이를 창업으로까지 연계시켜주는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만 창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임
 - 특히, 이미 창업을 한 사람들이 창업 컨설팅의 중요성(47.7%)을 더욱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나타남
- 성별로는 남자나 여자의 경우 창업 활성화 방안을 비슷하게 언급하고 있으며, 다만 창업 교육 지원에 대한 여자들의 요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

<창업 활성화 방안>



<창업 활성화 방안(성별)>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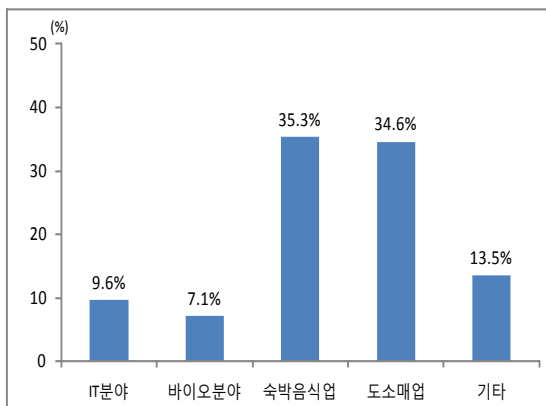
○ 생계형 창업보다 혁신형 창업으로 유도

- 우리나라 사람들은 혁신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으로 진출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
 - ‘귀하는 어떤 분야에서 창업을 하고 싶으십니까’라는 질문에 숙박업 및 식음료업 분야에서 창업하고 싶다는 응답이 35.3%로 가장 많음
 - 이외에 도소매 유통업 분야 34.6%, IT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분야 9.6%, 바이오 및 의학 분야 7.1% 등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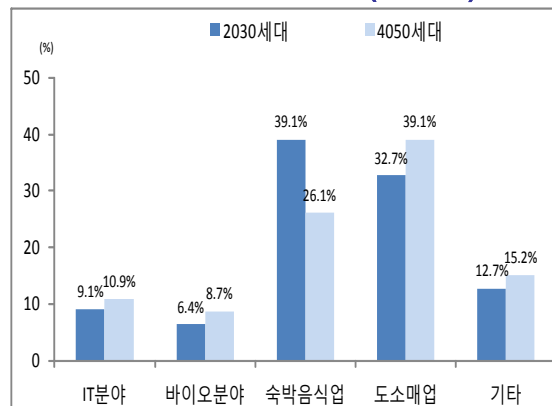
- 숙박업 및 식음료업과 도소매 유통업 등 전통적인 생계형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69.9%나 되는 반면, IT나 바이오 등 혁신형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16.7%에 불과함
 - 이는 이미 포화 상태인 전통적인 생계형 분야의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, IT나 바이오 등 혁신형 창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보임

- 연령별로 살펴보면, 혁신형 창업을 하겠다는 2030세대가 4050세대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
 - 혁신형 창업을 하겠다는 2030세대(15.5%)가 4050세대(19.7%)보다 적음

<창업하고 싶은 분야>



<창업하고 싶은 분야(연령별)>



3. 시사점

○ 첫째, 창업과 관련된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어려서부터 제공하여 창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함

- 창업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창업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
 - 특히, 우리나라의 경우 학교 교육 등 정규 교육을 통한 창업 관련 교육을 받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조차 이를 창업과 연계시키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임
 - 따라서, 창업 관련 교육을 활성화하여 어려서부터 창업과 관련된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함

○ 둘째, 창업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시켜주는 컨설팅이나 멘토 제도 등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함

- 창업 아이디어가 있는 사람들이 창업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주는 컨설팅 방안이 필요함
 -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경우 창업 자금 지원도 중요하지만,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
 - 따라서, 창업 아이디어를 창업으로 연결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나 멘토와의 연결 등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됨

○ 셋째, 생계형 창업보다는 IT, 바이오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혁신형 창업을 유도해야 함

- 전통적인 생계형 창업보다는 IT 등 경제적 파급 효과가 높은 혁신형 창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
 - 설문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창업자들의 창업이 생계형 창업에 몰릴 경우, 이미 포화 상태인 전통적인 생계형 분야의 경쟁을 심화시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

- 따라서, IT나 바이오 등 혁신형 창업으로 창업자들을 유도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부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보임
- 넷째, 소극적인 청년들의 창업 열기 고취를 통해 청년실업문제의 극복의 계기로 활용해야 함
 - 최근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와 관련하여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것도 필요함
 - 2030세대의 경우 4050세대에 비해 오히려 IT나 바이오 분야 등 혁신형 창업보다는 생계형 창업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임
 - 따라서, 청년들에게 좀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, 창업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, 특히 혁신형 창업을 과감히 펼칠 수 있도록 하여 향후 우리나라 경제활성화의 근간으로 삼아야 함 **HRI**

장후석 연구위원 (chahus@hri.co.kr, 02-2072-6234)

별첨 : 응답자 특성표

| | | 사례수(명) | 비중(%) |
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|
| 전 체 | | (815) | 100 |
| 성별 | 남 자 | (407) | 49.9 |
| | 여 자 | (408) | 50.1 |
| 연령 | 20 대 | (261) | 32.0 |
| | 30 대 | (233) | 28.6 |
| | 40 대 | (187) | 22.9 |
| | 50대 이상 | (134) | 16.4 |
| 직업 | 사무직 | (400) | 49.1 |
| | 영업 및 생산 | (107) | 13.1 |
| | 자 영 업 | (109) | 13.4 |
| | 학 생 | (103) | 12.7 |
| | 무 직 | (20) | 2.0 |
| | 주 부 | (62) | 7.6 |
| | 농 임 어 업 및 기타 | (33) | 4.1 |
| 소득수준 | 200만원 미만 | (153) | 19.7 |
| | 400만원 미만 | (337) | 43.4 |
| | 600만원 미만 | (206) | 26.5 |
| | 600만원 이상 | (81) | 10.4 |
| 학력 | 고등학교이하 | (156) | 19.2 |
| | 대졸 이상 | (658) | 80.8 |
| 지역 | 서 울 | (170) | 20.9 |
| | 지 방 | (645) | 79.1 |

HRI 경제 통계

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

<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>

| 구분 | 2011 | 2012 | 2013 | | | | 2014 | | |
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
| | | | 1/4 | 2/4 | 3/4 | 연간(E) | 연간(E) | | |
| 국민계정 | 경제성장률(%) | 3.7 | 2.0 | 1.5 | 2.3 | - | 2.6 | 3.8 | |
| | 민간소비(%) | 2.4 | 1.7 | 1.5 | 1.7 | - | 2.0 | 2.7 | |
| | 건설투자(%) | -4.7 | -2.2 | 2.4 | 7.1 | - | 3.7 | 2.5 | |
| | 설비투자(%) | 3.6 | -1.9 | -11.9 | -5.1 | - | -1.5 | 6.7 | |
| 대외거래 | 경상수지(억 \$) | 261 | 431 | 100 | 198 | - | 620 | 490 | |
| | 통관기준 | 무역수지(억 \$) | 308 | 283 | 57 | 143 | 111 | 468 | 399 |
| | | 수출(억 \$) | 5,552 | 5,479 | 1,353 | 1,412 | 1,370 | 5,648 | 6,123 |
| | | 증감률(%) | (19.0) | (-1.3) | (0.4) | (0.8) | (2.9) | (3.1) | (8.4) |
| | | 수입(억 \$) | 5,244 | 5,196 | 1,297 | 1,269 | 1,259 | 5,180 | 5,724 |
| 증감률(%) | (23.3) | (-0.9) | (-3.0) | (-2.7) | (0.2) | (-0.3) | (10.5) | | |
| 소비자물가 상승률(%) | 4.0 | 2.2 | 1.4 | 1.1 | 1.2 | 1.4 | 2.4 | | |
| 실업률(%) | 3.4 | 3.2 | 3.6 | 3.1 | - | 3.3 | 3.1 | | |
| 원/달러 환율(평균, 원) | 1,108 | 1,127 | 1,085 | 1,123 | 1,111 | 1,098 | 1,070 | | |

주: E(Expectation)는 전망치.